



최근 石油소비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소비풍조의 일면으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90년대 제3의 석유위기설 때문에 石油소비증가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石油소비증가를 수반하는 직·간접 경제적 부담을 감안할 때 비록 石油소비가 경제활동 증가의

'90년대 석유산업 및 석유정책과제

결과라 할지라도 소비증가를 우려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石油소비증가는 국제수지에 부담을 줌과 동시에 막대한 투자부담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이 최근 시설확장에 주력하는 것, 정부가 비축시설확장을 추진하는 것, 전국적 송유관망설치 투자를 추진하는 것, 이 모두가 石油수요가 조만간에 1일 1백만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부가해서 저공해석유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 '90년대 세계석유수급 환경의 악화와 대응

투자부담도 막대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90년대 세계石油수급환경의 악화도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시장력 증강, 특히 세계石油수급의 최종조절의 기능이 소수 中東산유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石油공급과 가격 리스크의 대폭적 증가는 필연적인 것 같다. 또한 中東산유국의 하류부문 확장정책이 '90년대 세계石油수급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소비국의 석유산업정책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의 석유산업은 새로운 전략과 비전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과 기업경영전략의 목표를 石油공급의 안전성 확보와 석유산업의 안전성 확보에 두고 모든 정책도구가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李 會 晟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리스크를 외생변수로 수용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적극적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石油공급의 안전성과 석유산업의 안전성은 궁극적으로 石油 상류부문의 확보를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부연할 필요도 없이, 석유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전탐사, 개발, 생산의 상류부문과 정유, 유통, 판매의 하류부문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전략과 석유정책은 경제적 안정공급의 근원적 달성을 위해 石油 상류부문 능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石油부문의 막대한 투자사업에 추가해서 기필코 수행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韓國 석유산업이 아직 본격적인 상류부문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류부문만으로도 에너지산업으로써 공공적 기능과 기업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石油소비규모가 작았으므로 물량확보에 애로가 없었으며, 세계석유시장이 상당기간 구매자시장으로 변형되어서 상류부문에 대한 위험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끝으로 비용보전적 가격규제제도의 운영으로 상류부문의 가격변동위험이 전부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류부문 중심의 석유산업구조는 이제까지의 여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로 향후 격변이 예상되는 세계石油 시장에서 한국의 국익을 신장하고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 상류부문-하류부문 통합구조의 구축

'90년대 후반에는 韓國의 石油수요가 150만B/D에 접근할 것이므로 우리는 세계 제3대 원유수입국이 될 것이며, 우리의 原油구입은 세계시황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계석유시장여건의 변화는 韓國시장과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다. 상류부문이 결여되어 있는 석유산업 구조에서는 原油의 공급불안과 가격상승 위험이 고스란

히 하류부문 운영자에게 전가되므로 韓國의 미래석유산업은 너무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곧 상류부문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原油수입선 다변화를 위험분산의 방법으로 채택해왔다. 그러나 만약 공급계약과 가격상승의 분위기가 성숙되는 여건이 조성되면 이것은 전 수입선에 파급될 것이므로 위험분산책으로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OPEC의 하류부문 침투에 대한 가장 근원적 적극적 대응방안은 우리도 하루빨리 상류부문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OPEC는 이제까지는 주로 美國과 유럽의 석유제품시장을 대상으로 하류부문 투자를 확대했으나, 앞으로는 日本과 韓國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여러가지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하겠으나, 석유산업계도 상류부문-하류부문 통합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상류부문 능력을 확보키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와 석유산업계는 오래전부터 국내의 유전탐사개발에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도 일반국민들에게는 이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예컨대 北예멘에서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유전개발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으며, 실패를 받아 들이는데에 매우 인색한 것 같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탐사시추의 실패결과가 종종 쟁점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한 예라 할 수 있다. 개발목표도 중요하고 자원조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해가 있어야 보다 적극적인 탐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주개발원유의 확보와 투자계획

장기적으로 정부는 소요原油의 20%를 개발수입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예산등 구체적 추진계획이 공표된 바는 없다.¹⁾ 유전탐사개발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의 수립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

1) 국내대륙붕에서는 1998년까지 물리탐사 1만L-km, 기초시추 9개공, 외국석유회사와의 공동시추 26개공등을 실시하여 '92년, '94년, '98년에 각각 1개씩, 3개의 유전을 발견할 계획이다.(석유사업기금백서 p147참조) 그러나 이것이 20%의 개발목표와 어떤 연결을 갖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은 공표된바 없다.

다. 그러나 20%의 목표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윤곽이 잡혀있어야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석유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엄밀히 생각해 볼때, 탐사개발 투자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릇 모든 투자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계획되고 집행된다. 연구개발투자의 불확실성이 石油탐사개발투자의 불확실성보다 작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연구개발투자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전탐사개발투자는 그러한 계획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있다. 美國의 180개 석유회사들은 매년 총 5백억달러의 탐사개발예산을 편성하여 유전확보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의 단기적 목표는 생산으로 소진된 매장량 만큼은 당해년도에 보전하자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石油수요에 맞추어 경쟁적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유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수십년간의 투자와 운영의 경험을 통해 투자소요를 판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상류부문의 능력개발을 본격화하지만, 이 부문의 투자소요를 판정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후 原油수요 150만B/D의 20%인 30만B/D를 개발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하는가?

투자소요액의 추정은 통상적으로 에너지 한단위의 공급을 확보하는데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량의 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 1kw의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500~2,500달러의 투자비가 소요되며, 유연탄발전은 800달러, 石油발전은 600달러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石油의 1일 1배럴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의 투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石油의 생산은 유전의 천연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전력투자와는 다르게 단위당 투자소요액에 많은 편차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생산능력결정

의 가변요소를 감안하여 투자소요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석유생산 단위당 투자소요액 산정방법

石油생산 단위당 투자소요액 산정은 두가지 접근법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첫째는 생산배럴당 개발비용 (development cost per barrel)을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규확보유전의 평균비용(average cost of newly found reserve)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접근법은 美國 MIT의 모리스 에이들만박사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石油탐사개발에 대한 정보의 제약, 자료의 제약을 우회하여 투자소요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²⁾

이 두가지 기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럴당 개발비용 기준 투자비 산정

배럴당 개발비용은 유전확보에 투입된 총투자액을 1B/D 생산능력기준으로 비용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1B/D 생산능력 확보에 투입된 투자액이 1,000달러라 가정하고, 연간 운영비가 투자액의 5%, 생산에 의한 유전감모율 10%, 할인율 21.5%를 가정하여 비용화하면 개발비용은 배럴당 정확히 1달러가 된다. 즉 개발비용 1달러를 투자소요액으로 환산하면 1B/D 생산당 1,000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운영비 등의 가정을 다르게 하면 양자간의 관계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가정한 5%의 운영비 등의 수치는 막연한 가설이 아니라 세계석유산업에서 통용되는 수치이며, 이것은 石油개발 운영의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래서 세계석유산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1,000대1 비율에 의한 추정공식이 통용되고 있다.³⁾ 예컨대 어떤 유전의 개발비용이 생산배럴당 12달러라면 소요투자액은 생산배럴당 12,000달러이며 그 유전의 생산능력이 1일 10,000배럴이라면 총투자액은 120백만달러가 된다.

2) M.A. Adelman, "The Competitive Floor to World Oil Prices", The Energy Journal, Vol.7, No.4, 1986, p.9-35 : "Offshore Norwegian Development Cost Calculated from Project Data", MIT-ELWP, 1987 : and M. Shabi, "Oil Development-Operating Cost Estimates, 1955-85." Energy Economics Jan 1989, p.2-10

3) Christopher Johnson, "Alternatives to OPEC Oil: Investment Costs and Financing Prospects", Energy Policy June 1981, p.89

이같이 유전의 개발비용을 알면 투자소요액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개발비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에 신뢰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주로 PIW 혹은 Oil & Gas Journal 등에 개발비용이 집계, 보고되고 있는데 상당부분 소득세, 개발조세등 개발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어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개발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자료에 보고되고 있는 개발비용은 몇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여 시사성 위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결점도 있다.

(2) 石油발견 평균비용 기준 투자비 산정

앞의 방법의 자료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법이 油田 발견 평균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기법은 유전매장량(R), 감모율(a)을 기초로 하여 1일 생산능력(Q)을 계산하고 이것을 투자비(K)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Q는 $R \cdot a / 365$ 이므로 우리가 알고자하는 1일 생산능력당 투자비(K/Q)는 $(K/R) \cdot (365/a)$ 이 된다.⁴⁾ 여기서 첫번째항, K/R은 총투자비를 매장량으로 나누어

준 수치이기 때문에 유전발견 평균비용을 의미한다. 즉 유전발견 평균비용과 油田감모율의 데이터만 있으면 K/Q, 즉 1B/D당 투자비는 산정될 수 있는 것이다.

• 유전발견 비용과 투자비

油田발견 평균비용은 매년 세계석유회사들의 서베이를 통해서 여러기관에서 시계열적으로, 석유회사별로 보고하고 있다. 油田감모율은 유전마다 물론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연율 10%~11%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방법, 油田발견 평균비용을 활용하여 1B/D당 투자비를 추정하였다. 油田발견 평균비용의 데이터는 다년간 이 분야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해온 "John S. Herold 회사"의 서베이 보고서에 수록된 71개 석유회사의 연도별, 지역별, 회사별 油田발견 평균비용을 활용했다.⁵⁾ 유전감모율 10%를 가정하여 추정된 1B/D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투자비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1> 생산능력 B/D당 투자비(\$/BD)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4~1988 가중 평균
세 계 평 균	30,879	31,135	34,456	26,280	20,440	27,302	26,390	14,491	17,885	20,367
美 國 평 균	38,580	42,632	35,989	33,142	24,820	29,821	25,952	17,228	18,579	23,214
기타지역평균	22,520	20,404	31,609	19,163	14,381	23,287	27,047	11,936	17,265	16,936

'80년대 후반기중 1B/D당 투자비는 세계평균이 20,367달러이었으며, 지역별로는 美國이 23,214달러, 美國을 제외한 지역이 16,936달러이었다. 여기서 세계평균이란 Herold 서베이에 포함된 美國회사가 전세계에서 수행한 탐사개발투자비의 평균이기 때문에 유럽과 日本의 석유회사들이 수행한 투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비록 Herold 서베이가 美國회사에 국한되어 있지만, 조사대상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유럽과 日本회사의 탐사개발 투자결과도 이 범주내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데이터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80년대 전반기와 대비해볼 때, 후반기에 1B/D당 투자비는 감소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기에 석유가의 하락으로 석유회사들이 모험적 탐사개발 프로젝트를 대폭 삭감하고 위험도가 낮은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유전발견 평균비용이 하락했으며, 따라서 생산능력당 투자비도 감소했다. 앞으로는 세계油價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탐사개발 프로젝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따라 생산능력당 투자비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비 규모의 분포는 <표-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4) Adelman(1986) p.15 참조

5) John S. Herold, Inc. Petroleum Outlook, June 1989. p.3

〈표-2〉 투자비 분포

투자비 (\$ / BD)	석유회사수
1,000 - 10,000	13
10,000 - 20,000	19
20,000 - 30,000	9
30,000 - 40,000	7
40,000 -	8

같이 美國 제외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중 57%가 배럴당 20,000달러 미만이었다. 회사규모와 투자비는 〈표-3〉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관한 것 같다. 이것은 석유회사 규모가 크다고해서 반드시 탐사개발의 효율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어떤 수치가 적절한가? 이제까지 제시된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B/D당 투자비는 예상했던 대로 연도별, 회사별로 매우 큰 변동폭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탐사개발대상 유전의 질, 기술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韓國은 상류부문진출 역사가 일천하여 경험축적이 없는 상황이므로 평균보다는 높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B/D당 20,000~30,000달러 정도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2〉에 의하면 美國석유회사의 약 16%가 이 그룹에 해당된다.

이같은 가정하에서 30만B/D의 상류부문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투자비는 60억~90억달러가 된다. 만약 메이저 석유회사 수준의 실적을 좇아간다고 해도 약 45억달러의 투자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로

〈표-3〉 주요회사별 투자비

액	순	\$15,951BD/B
모	빌	16,024
세	브	12,264
텍	사	12,483
	셀	11,753
아	코	31,536
악	시	8,943
펜	즈	68,365
윌	립	9,527
	스	
	석	
	유	40,880
	노	
	칼	16,024

막대한 투자부담이다. 현재의 석유사업기금 4조원 전액을 탐사개발에 투자하고 세계평균정도의 실적을 발휘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된다.

• 석유 및 LNG 개발투자비의 비교

이러한 石油의 상류부문 투자비는 LNG 개발수입투자 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천연가스는 石油의 경쟁연료로써 이용의 편의성, 저공해성 때문에 그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배관망이 완료되면 천연가스의 수요는 본격 성장세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LNG로 수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높은 투자비의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4〉에 LNG의 개발수입투자비를 石油와 비교할 수 있도록 石油환산 IB/D당의 금액으로 제시했다. ING의 투자비도 石油의 경우와 같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천연가스 매장의 질, 수송거리 등의 차이와 주요전제에 대한 분석기관의 견해 차이 등에서 비롯된다. 전체적으로 LNG투자비는 1B/D당 12,000~43,000달러의 수준으로 석유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즉 투자비 부담면에서는 石油 상류부문 확보의 비용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표-4〉 LNG개발수입투자비¹⁾ (\$ / BD)

IEA 보고서 ²⁾	\$27,000
Shell 보고서 ³⁾	22,000 - 43,000
Gaffney 보고서 ⁴⁾	12,000 - 15,000

〈주〉 1) 1990년 \$

2) IEA, Natural Gas Prospects to 2000, 1982, P. 54

3) Christopher Johnson, "Alternatives to OPEC Oil: Investment Costs and Financing Prospects, Energy Policy June 1981, P. 89

4) 에너지경제연구원 "천연가스자원도입조사 및 계약관행분석에 관한 연구" 1989. 11

우리가 그동안 LNG를 石油보다 비싸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LNG 도입과 활용에 필요한 새로운 설비투자의 부담때문이다. 그러나 石油를 개발해서 도입하려면 이익

시 새로운 투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LNG는 石油보다 비싼연료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할 것이다. 石油 상류부문 확보의 투자비는 주로 石油를 찾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비해서 LNG 투자비는 주로 가스를 처리하고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비용인 점을 주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石油탐사개발의 부산물로 가스매장이 확인되며, 소비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버려져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스전의 속성이다. 이 때문에 LNG 투자비는 가스처리와 수송의 비용인 것이다.

이러한 비용구조는 불확실성의 소재가 무엇인가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선택의 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투자와 에너지공급간에 확실성을 중시하는 여건에서는 石油 상류부문 투자보다는 LNG 투자가 선호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LNG 개발투자의 불확실성이 가스부존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의 시장성에 있으며, 이 시장성은 상당부분 정부정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많은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석유개발수입 20% 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향후 10여년 동안 무슨 수단으로 최소한도 60억달러의 재원을 조달하여 石油 상류부문 기반을 갖추는 것인가? 이것은 정부와 석유업계가 같이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90년대 油價상승의 새로운 여건에서 '80년대 후반

기식의 석유기금 조성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새로운 방안은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투자계획의 체계화

아울러 투자계획과 집행도 정부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石油탐사개발 분야의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과 자금과 정보의 유기적 활용을 통해 石油 상류부문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사업가적 관리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성공불용자제도는 石油탐사개발에 관해 민간부문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있을 때에만 그 효과가 발휘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처럼 石油탐사개발의 경험이 일천한 곳에서는 투자인센티브가 투자결정의 관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경험과 능력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체적 계획을 세워 사업주체로서의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사업인 石油탐사개발투자에서 규모의 경제와 집종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石油 상류부문의 본격적 기반구축은 정부의 리더쉽에 달려있다.♣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학문을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밝힌다.

- 청소년은 출생, 성별, 학력, 지역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모든 청소년은 적성과 능력을 갖고 닦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는 슬기와 용기를 갖춘다.
- 가정은 청소년이 정서를 가꾸고 애정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아버이는 올바른 삶과 본을 보이며, 자녀는 어른를 공경하는 품가짐과 밝은 성품을 익힌다.
- 학교는 청소년이 조화로운 배움을 통하여 교양과 지식과 체력을 기르는 곳이다. 자질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며, 문화의 식과 시민정신을 높인다.
- 사회는 청소년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 있게 봉사하는 곳이다.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더불어 사는 기쁨과 여가선용의 마당을 제공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든다.
-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일터를 고루 갖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개개인을 각별히 보호하여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이끈다.